

타고 나는 것은 있다

(기질이란 무엇인가?)

어린 자식을 나무랄 때 “제 애비 닮아서” 또는 “제 어미 새끼 아니랄까 봐서”라는 표현을 쓰는 부부들이 많이 있다. 귀에 거슬리는 말인 줄 뻔히 알면서도 습관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들은 아마도 자식의 못 된 행동이 배우자의 못 마땅한 점을 자꾸 연상시키기 때문에 그리할 것이다.

어떤 아이들은 놀랍게도 제 아버지의 얼굴을 쏙 빼다 박은 듯이 닮아서 ‘판박이’라든가 ‘붕어빵’이라든가 하는 말을 듣는다. 어째서 그렇게 닮았나 신기하기도 하다.

자식이 부모를 쏙 닮는 이유야 부모의 특정 형질(形質)이 유전자를 통해 2세에게 전달되기 때문이겠다. 그러나 잘 보면 꼭 생긴 모습만 그리하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아들은 아버지의 행동이라든가 습관적인 동작을 기가 막힐 정도로 빼어 닮는다.

어떤 집을 가보면 아버지가 “어험 어험”하며 독특한 기침 소리로 목구멍을 청소하는 걸 무심결에 듣다가 그 집 아들이 그것과 거의 유사한 소리로 “어험 어험”하는 것을 듣고는 깜짝 놀라게 된다. 더 놀라운 것은 “애 할아버지도 그랬어. 우리 집에 이걸 유전인가 봐”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이다. 정말이지 이런 헛기침도 유전되나 하고 놀랄 때가 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런 ‘목구멍 청소 소리’같은 것은 같이 살고 있음으로 해서 보고 배우는 것일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어떤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는가 하는 것을 관찰해 보면 그 아이만의 독특한 특성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그 부모 중의 특징인 또는 조부모 중의 한 사람이 문제를 접근해 가는 방식과 많은 유사점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런 부분, 즉 들으면서 보고 배운 습관적인 헛기침 소리 말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문제에의 접근 방식 또는 해결 방식은 기질(氣質:temperament)이라고 불리는 ‘물려받은 특별한 성질’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 기질은 그냥 타고 나는 것이다. 어린 개체는 기본적으로 타고난 기질에 의해 문제의 접근 방식을 찾는다. 그러므로 타고난 기질 때문에 어린 개체가 행동 상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맹자(孟子)의 성선설, 순자(荀子)의 성악설도 지나치게 이분법적이기는 하지만 결국 무엇

이 되었든지 “타고 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다. 기질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공자(空子)의 백지설(白紙說)” 정도가 새로 나와야 하지 않겠는가.

아이가 성장해 가면서 성격 발달이 어떻게 되어 갈까 하고 예측해 볼 수 기질적 요소는 몇 가지가 있다.

첫째, 낮 시간에 활동적이거나 비활동적인 정도, 둘째, 수면 각성 주기나 섭식 배변 등의 규칙성, 셋째, 환경 변화에 대해 적극적인 반응을 하느냐 혹은 위축되느냐 하는 것 등이 그것이고 그 외에도 자극에 대한 반응의 강도, 인내성, 사람들 사이에서 즐거워하느냐 하는 기초적 사회성의 여부,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 등이 있다.

모든 아이들은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생물학적 주기와 적응의 능력, 정서적 반응이 서로 많이 다르다.

뉴욕 대학의 토마스(Thomas)교수는 부모의 입장에서 키우기 어려운 아이들이 있음을 관찰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하는 바, 그런 아이들의 특징은 먹는 것, 잠자는 것의 생물학적 기능이 불규칙하고,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이 어려우며, 다른 아이들보다 자주 발버둥 치면서 운다고 하였다. 이런 특징은 상당 부분 유전자를 통하여 대물림을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타고 나는 것’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하지는 않는다. 타고 나는 것이 있는 만큼 보고 배우며 변화되어 가는 것도 많다.

아버지의 헛기침을 들으면서 자라는 아들은 그것을 ‘권위와 위엄을 상징하는 가장의 특권’으로 받아들여 은연중 부러워하는 것이며, 이것은 동성(同性)의 부모와의 동일시를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추가 복사’되는 것이다.

한편 타고난 기질이 강하면 키우기 어렵다. 타고난 기질 위에 많은 침착이 필요해진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에게는 경험과 훈육을 제공하는 일차적인 환경 즉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며, 자식을 둔 부모는 자식 교육에 앞서 자신을 다시 한 번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다.